

## 〈못참겠다〉, 분통 터지는 세상에 고하는 외침

**KBS**  
남승우 기자



[못참겠다] 천 원짜리 퇴직금 수천 장 주고 세어 가게 한 사장님... "이런 갑질 보셨나요?"

천 원짜리 퇴직금 갑질, 아고다 피해, 근저당에 밀려 날리게 된 전세금, 아르바이트생 무단 퇴사에 악덕업주 된 학원 원장.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이어오고 있는 KBS 〈못참겠다〉 시리즈로 소개된 사연들입니다.

‘제보는 많지만 TV뉴스로 다뤄지는 제보는 많지 않은 현실, 이 가운데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려내 디지털 스

토리텔링 콘텐츠로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20개 넘게 제작하면서, 매 편마다 많게는 100만이 넘는 조회 수와 수천 개 댓글을 기록하는 등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콘텐츠가 TV로도 나가는 ‘크로스 미디어’ 시너지도 이뤄냈습니다.

국민도 돕고 KBS 콘텐츠 소비자도 늘려보자며 시작한 〈못참겠다〉. 그 여정에서 만난 사연들에 얽힌 각양각색 뒷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 # '천 원짜리 퇴직금' 편 - '인간에 대한 예의' 를 이야기하다

4년 넘게 일한 횡집 퇴직금을 천 원짜리 수천 장으로 받아 직접 센 것도 모자라 집단 압박에 새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된 대전항 수산시장 근로자 65살 손정희 씨의 이야기를 전한 <[못참겠다] 천 원짜리 퇴직금 수천 장 주고 세어 가게 한 사장님...“이런 갑질 보셨나요?”>(2019년 4월 28일). 반향 면에서 단연 기억에 남는 보도입니다.

손 씨의 전화 제보 내용을 보고, 처음엔 사실 '설마' 했습니다. 과장된 제보가 아닐까 싶어서 수산시장과 고용노동부, 다른 횡집 등에 하나하나 전화해봤습니다. 뜻밖에도 사실이었습니다.

곧바로 충남 보령으로 가서 손 씨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퍼즐의 남은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대방 이야기' 를 들어보기 위해 손 씨가 일했던 횡집 업주에게 연락했습니다.

15분에 걸친 대화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3자 시각에서 갑질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고 거듭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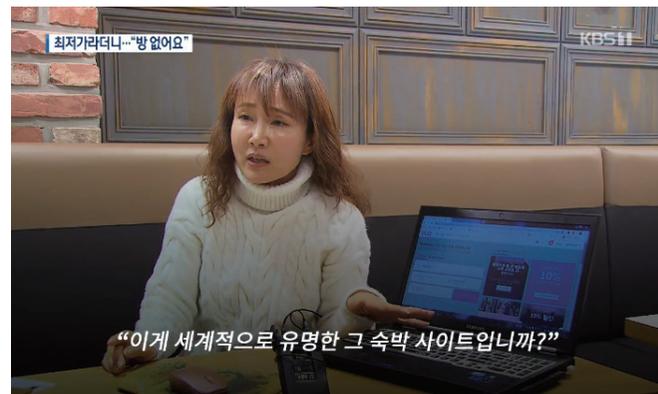
심스레 물었는데, 업주는 “돈 많이 세어 보라고 그렇게 줬다”, “천 원짜리로 준 게 불법이냐”, “계좌로 보내면 수수료 드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상인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 양반 쓰려면 조심해서 쓰라’ 고 했을 뿐”이라며 시종일관 ‘뭐가 문제냐’ 고 했습니다.

취재 결과는 디지털 버전으로 나갔고, 세상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이틀도 안 돼 조회 수 100만을 돌파했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불매 운동과 여행 취소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커서 KBS <뉴스9>로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결국, 상인회는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연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뿌듯함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문제 소지가 농후했는데, 그들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모질게 다뤘을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함을 느끼게 한 취재였습니다.

## # '아고다 피해자' 편 - 방송기자 뺨친 주부의 취재 정신

<지옥 같은 해외여행 선사한 아고다...



[못참겠다] 지옥 같은 해외여행 선사한 아고다...“우리 가족여행을 고발합니다”

“우리 가족여행을 고발합니다”>(2018년 12월 16일) 편의 제보자 50살 김미정 씨도 <못참겠다> 시리즈에서 잊을 수 없는 사례로 기억됩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취재 정신’ 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못 들어가게 된 원래 숙소와 아고다 측이 마련해줬다는 좁고 지저분한 임시 숙소의 모습을 담은 영상, 현지 관계자 인터뷰까지 있을 게 다 있었습니다.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데 장시간 연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중학생 딸을 시켜서 찍어냈습니다. 웬만한 방송 기자 뺨치는 감각이었습니다.

‘시민 의식’ 도 돋보였습니다. 별도 배상은 불가하고 숙박비만 되돌려주겠다고 아고다는 취재가 시작되자 돌변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면 몇백만 원을 주겠다고 김 씨를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지 그림과 제보자의 독심 덕에 ‘아고다 피해’ 사연은 무난하게 제작돼 디지털 버전으로 나갔습니다. KBS 홈페이지·네이버·유튜브 등에서 모두 100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KBS <뉴스9> <뉴스광장> 등 TV 뉴스로도 나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했습니다. 추가 제보가 수십 건씩 쏟아졌습니다. 결국, 아고다는 배상에 합의하고 공식 사과의 뜻까지 밝혔습니다. 깔끔한 결말이었습니다.

## # '전세금 피해자' 편 - 전입신고 효력은 이틀날 생긴다고요?

<전입신고 날 근처당 건 집주인... “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2019년 1월 13일) 편의 사회적 반향도 상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전세’ 에 얽힌 억울한 사연과 제도적 부조리를 짚은 게 주효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도 전셋집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됐다는 54살 장준수 씨 부부의 제보는 처음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췄는데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 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근저당도 설정됐는데, 현행법상 전입신고는 '익일' 부터 효력이 생기는 반면 근저당은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로서도 뜻밖이었습니다. 수년간 전세살이 경험이 있음에도 전입신고 효력이 이튿날 생긴다는 건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건 장 씨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란 생각으로 보도했습니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왜 제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추가 제보와 함께, '어떻게 해야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각종 보증금 보호 장치들을 담은 후속 기사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상 생활 속 부조리, 특히 '나에게도 생길지 모를 일'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못참겠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보를 더욱 눈부릅뜨고 봐야겠다'는 다짐을 더욱 되새기게 한 보도였습니다.

### # '현대차 피해자' 편 - 회유받고 "그만 취재해 달라"던 제보자

<4번 과열 새 차 엔진교체... "사람이 죽어야 차를 바꿔주나요?">(2018년 7월 11일) 편은 극적인 취재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회유에 흔들린 제보자의 변심으로 한때 취재 무산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 내용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새 차 산 지 한 달 만에 동일 하자가 4차례 연속 발생한 만큼, 현행 규정상 차량 교체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현

대차는 차량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쩔 거냐'는 항의에도 "고객님은 앞으로 계기판 오류 신호를 잘 살피실 것이기에 그럴 일 없을 것"이란 황당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차를 바꿔주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보자에게 "무슨 일 있어도 '그만 취재해 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 우리 언론사지 흥신소가 아니다. 당신 사연은 다른 소비자도 알 권리가 있는 사안이라서 취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제보자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못참겠다] 4번 과열 새 차 엔진교체... "사람이 죽어야 차를 바꿔주나요?"



하지만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차가 차량 교체를 결정했고, 제보자는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 "그만 취재해 달라, 인터뷰에 못 응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자. 이미 받아둔 녹취와 영상이 있으니 인터뷰 없이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을 거야, 현장에 가면 답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강원도 강릉의 정비센터. 현대차 직원과 함께 한 젊은 남성이 머쓱한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제보자였습니다. 취재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을 것'이라던 믿음이 현실이 되면서 절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취재는 잘 됐고 보도도 잘 나갔습니다.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유튜브 한 곳에서만 100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모든 플랫폼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대차는 약속대로 차를 바꿔줬고, 언제 또 차가 고장 날지 가슴 졸였던 제보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

기를 극복하고 보도도 문제 해결도 동시에 이뤄낸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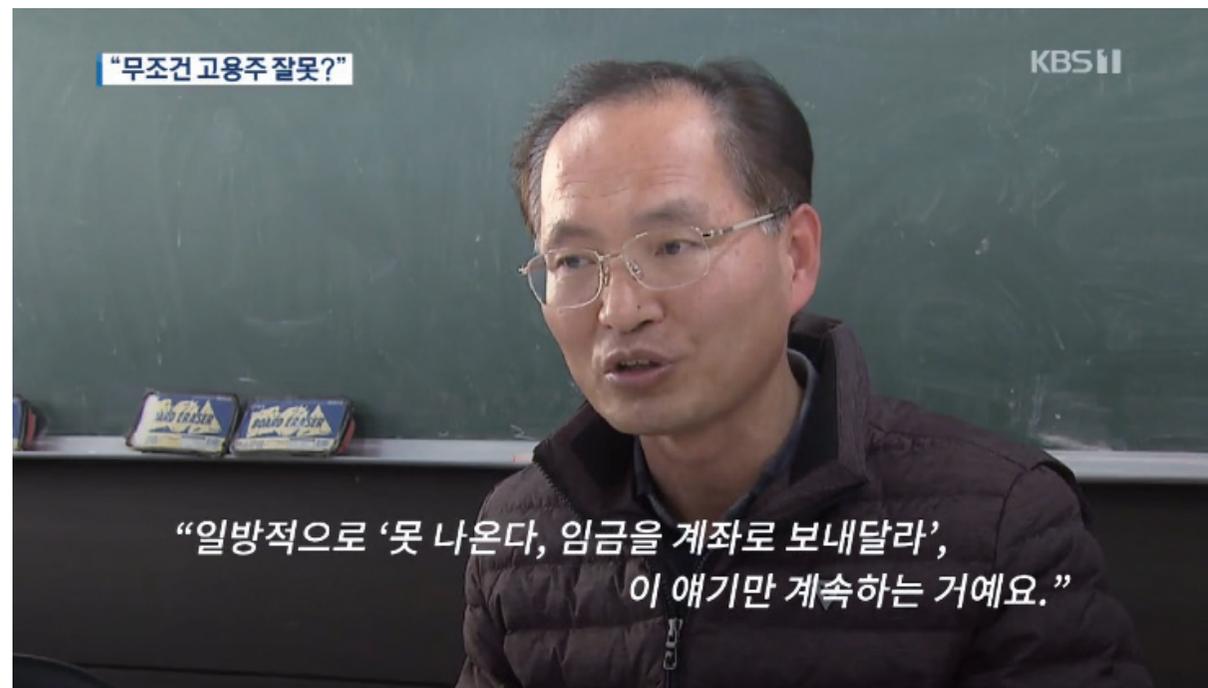
### # ‘임금체불 전과자 됐던 학원장’ 편 - “제가 악덕업주인가요?”

대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임금 체불 전과자가 됐던 57살 김운오 씨의 사연인 <맘대로 관둔 건 알바인데 업주에 벌금형...“제가 악덕업주인가요?”>(2019년 2월 17일) 편은 취재 여부를 놓고 찾아들었던 현실적인 고민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르바이트 강사가 계약과 달리 한 달 만에 그만뒀다, 일방적 임금체불로 신고에 따른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면서 자신을 처벌 의견으로 넘긴 고용노동부를 원망한 김 씨의 제보. 심정은 이해 가면서도, 주저했습니다. ‘근로자는 약자, 고용주는 강자로 인식되는 게 현실인데, 고용주 입장을 다뤄도 괜찮을까?’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촉’을 자극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에 불

[못참겠다] 맘대로 관둔 건 알바인데 업주에 벌금형... “제가 악덕 업주인가요?”



과한 벌금형을 받은 고용주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이런 사건에 구체적 이유를 담아 무죄를 선고한 것도 모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고용주 편 드느냐’는 비난이 많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모처럼 고용주 목소리도 들어줘서 좋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이 있다는 다른 고용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소재 선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한번쯤 돌아보게 한 계기였습니다.

### # 못 참을 사연 찾아 삼만 리,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원청 갑질에 대표가 죽음을 택한 하도급업체, 남이 버리고 도망간 쓰레기 수천만 원 들여 치우란 군청 명령받은 부부, 그룹 회장 딸 못 알아보고 발레 주차증 줬다고 문책당한 용역업체 직원, 7년간 준 장학금 다시 내놓으란 시청 명령에 분개한 시민들 등 다른 <못참겠다> 사연들 역시 갑질, 나 몰라라, 소비자 기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통 유발 부조리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보를 정확히 검증하고 풀어내는 이런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람 역시 큼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기존 뉴스 스타일과 다른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몰입도를 높이고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자긍심을 갖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는 주변의 물음에 저는 “최소 50개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인데, 시간이 갈수록 어찌하면 그 이상을 만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듬어줄 수 있다면, <못참겠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